

결/과/보/고

「강원녹색성장포럼」
강원환경 제3차 수시포럼

결과보고서

2011. 11.

강원도·강원환경포럼·강원발전연구원

주 제 :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의 합리적 추진 및 활성화 방안

강원환경포럼 제3차 수시포럼

1. 일 시 : 2011. 11. 24(목) 16:00-18:00
2. 장 소 : 강원발전연구원 회의실
3. 주 최 : 강원도·강원녹색성장포럼(강원환경포럼)·강원발전연구원
4. 참 석 자
 - 발 제 자 : 『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을 위한 내셔널트러스트운동』
 - ▶ 김금호 사무국장 (한국내셔널트러스트)
 - 사 회 자 : 이무춘 교 수(연세대학교 환경공학부)
 - 토 론 자 : 김경희 사무국장(분당 환경시민의 모임)
(가나다순) 김정수 박 사(강원발전연구원 연구 I 본부)
지순식 사 무 관(강원도 환경정책과)
박상헌 본 부 장(강원발전연구원 기획경영본부)
이동석 교 수(강원대학교 환경공학과)
제현수 사무국장(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)
 - 간 사 : 한영한 박 사(강원발전연구원 연구 I 본부)

□ 발제 요약

발제)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을 위한 내셔널트러스트운동

- ▶ 김금호 사무국장(한국내셔널트러스트)

1. 내셔널트러스트운동에 대한 이해

○ 내셔널트러스트운동

-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산기증과 기부를 통해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자율적 관리와 운영으로 미래세대까지 영원히 보전하는 활동
- 산업혁명 이후, 영국의 급격한 산업화와 정주환경 파괴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자, 환경파괴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실천(전원도시운동, 농천경관 보전운동)운동 중 하나가 내

셔널트러스트운동

○ 내셔널트러스트운동

- 창립자는 옥타비아힐(빈민주거 재개발운동), 로버트 헌터(공유지 보존운동), 하드윅 롬슬리(성공회 신부)
- 1895년 1월 12일 ‘자연이 아름답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 보전을 위한 내셔널트러스트’ 라는 명칭으로 출발

○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의 구성요소

- 신탁대상 :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문화유산
- 신탁자 : 자산기증과 기부에 참여하는 주체
- 수탁자 : 영구보전을 위해 시민자산을 신탁받는 범국민적 수탁단체

○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의 이념과 정신

-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박애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개혁적 이념에 바탕을 둔 실천활동
- 자연과 문화유산에 대한 독점적 소유를 근절하고 사회적 자산으로 영구 보전을 추구
- ‘National Trust’ 의 의미는 ‘시민 스스로의 힘’ 에 의해 ‘신뢰’ 가 생겨나는 운동조직으로의 의미를 함유: 국가나 특정계급에 감독과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운동의 주체 역시 ‘시민’ 임을 선언
- 시민의 참여를 확산시켜 자연과 문화유산의 확보 및 보전에 국가와 대등하거나 능가하는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하여 시민사회의 권한과 영향력 강화

○ 영국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의 성장 배경

- 사회개혁적 사상을 이념적으로 공유하고 지지했던 다양한 시민계층(영국 최고의 부유층, 정치가, 예술인 등)의 참여
- 역사적 경관적 장소 보전을 위해 소유권을 취득 하는 새로운 실천방법을 제시하여 사유재산의 침해를 줄이면서 공익성 추구
- 1907년 의회에서 ‘National Trust Act’ 법 제정으로 토지의 ‘양도불가능’ 천명: 단체 임의로 토지를 매각 및 처분 불가하고 국가에 의한 수용도 불가능하여 전국적으로 내셔널트러스트운동 확산의 계기
- 영국의 조세제도 특성상 고액의 상속 및 증여세의 부담으로 내셔널트러스트에 기증하는 사례 증가 : 기증에 따른 세제감면의 혜택 부여
- 1~2차 세계대전으로 노동력 감소에 따른 경작이 불가능한 농지 및 초지, 관리가 어려운 저택과 가든이 내셔널트러스트에 기증

영국 내셔널트러스트 자산현황(2006)

보유자산의 종류	수량(면적)
역사적 건물	166채
성	19채
전통 산업시설	47곳
교회 및 성당	49곳
정원	160곳
선사 및 로마시대 유적	9곳
경관공원	73곳
보전 토지	250만ha
해안선	700마일

영국 내셔널트러스트 수입현황(2006)

구 분	수 입 액
회원회비	1641억
입장료	237억
투자수익	346억
생산수익	310억
임대수익	474억
정부보조금	91억
총계	3100억

○ 영국내셔널트러스트의 특징

- 광범위한 회원 및 자원활동가 보유
- 시민을 위한 접근기회 제공/다양한 교육, 관리운영프로그램 진행
- 자연·문화적 가치의 상품 가치로의 전환
- ‘자선단체’ 라는 규정의 순수 민간운동으로 자율성 유지

2. 한국에서의 내셔널트러스트운동

○ 내셔널트러스트운동 사례

- 광주 무등산 공유화운동
- 대지산 땅 한평 사기운동(용인, 분당 인근)
- 신탄백 변전소 건설 저지운동
- 원흥이 방죽 두꺼비 서식지 매입운동
- 서초구청의 우면산 트러스트운동

○ 국내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의 특징

-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의 원리와 개념에 대한 이해의 부족
-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라는 단일한 운동으로 성공하기 어려움
- 내셔널트러스트는 정부의 강제수용을 극복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
- 자치단체의 관심증가 및 그에 따른 한계표출
- 특정지역의 보전을 위한 운동적 차원으로서는 기능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녹색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창출이 미흡한 수준

○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위한 개선과제

-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통해 확보한 자산에 대해 제도적인 영구보전 실현
: 국민신탁법 개정을 통한 신탁법인의 독점적 혜택의 공유
- 확보된 지역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과 관리 운영능력 개발
- 자연과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기부문화의 성숙
- 자치단체와 NGO단체간의 공조를 유지하면서도 독립성과 자율성 실현
- 농지 등 보전을 위한 자산취득의 제한 개선
- 특정지역 보전을 위한 운동차원의 활동에서 발전하여 주민들이 보전과 관리에 참여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단계로의 성장필요

3. 한국 내셔널트러스트의 보전자산 및 활동사례

○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창립

- 한국사회에 본격적인 시작은 1990년대 말 정부가 추진한 ‘그린벨트 해제’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시작
-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고 공익적 가치의 환경보전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실현을 위해 추진
- 훼손위기에 처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영구보전하고 자연과 문화유산의 지역간, 세대간, 소득간의 공평한 이용을 실현한다는 목적아래 2000년 1월 25일 창립
- (재)내셔널트러스트문화유산기금’ 과 더불어 2009년 현재 4개의 자연유산과 3개의 문화유산을 관리, 운영

○ 확보 자산



<강화 매화마을 군락지>



<최순우 옛집>



<동강 제장마을>



<나주 도래마을 옛집>



<연천 DMZ 일원 임야>



<권진규 아틀리에>



<청주 원흥이 방죽 두꺼비 서식지>

○ 관리 운영 사례
- 동강 제장마을



<동강 청소년 환경캠프>



<동강 야생화 트래킹>



<가족과 함께 즐기는 체험농장>



<정춘불패, 초록세상만들기>
- 청소년 치유프로그램 -

- 매화마을 서식지



<매화마을 논습지 생태교실>



<매화마을 쌀 판매사업>
지역주민 수익증대 : 80kg, 40만원



<매화마름 쌀 호랑이 막걸리 판매사업>

4. 강원도내 적용 가능한 사업예시 : 동강 뽕대길 조성사업

○ 사업의 내용

-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위적으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자연하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동강과 석회암 절벽(뽕대)의 자연경관 그리고 마을의 문화 및 주민들의 이야기를 엮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연환경(문화)을 보전할 수 있는 새로운 ‘걷기 여행’의 패턴마련

○ 사업의 취지

- 영월댐 백지화 이후, 외지인에 의한 부동산 투기열풍 가속과 무분별한 펜션 및 민박업소의 증가에 따른 동강의 자연경관의 훼손 및 경제적으로 영세한 지역주민들의 경쟁능력 저하
- 자연적 경관과 문화적 요소를 포함한 ‘올레길’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음에도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, 동강 탐방객들은 백운산 등반이나 여름철 펜션 이용에 국한
- 동강의 역사와 자연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동강변 마을과 주민들간의 ‘생태관광라인’ 구축

○ 동강 뽕대길 조성 주요 사업

- 동강지역 ‘뽕대길’ 자원화 조사작업 진행
 - : 뽕대길 구간의 자연자원과 문화역사 자원, 풍습, 전설, 인물, 농가 등에 대한 조사
 - : 조사된 자료의 가이드 교육용 자료와 탐방객용 가이드북 제작
- 뽕대길’ 홍보가이드 모집 및 양성
 - : 지역민과 사회활동에 관심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이드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
- 뽕대길’ 운영 및 구간별 안내소(가이드)운영
 - : 탐방객들 사전예약을 통한 구간별 가이드 진행
 - : 안내소를 통한 민박 예약 및 뽕대길 안내 진행

○ 뽕대길 사업 대상지역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구간길이: 약 65km(광하리~삼옥리) ◦ 뽕대길 코스별 명칭(가칭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코스: 가수리 느티나무길 - 2코스: 고성산성 칠족령길 - 3코스: 진탄나루 어라연길 ◦ 코스별 이동경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1코스: 광하리~굴암리~가수리~운치리~고성분교 -2코스: 고성분교~고성산성~소동~나릿소~바릿소~제장(하방소)~하늘절벽~물렛재~소사~연포~거북이~칠족령~문희마을~황새여울~진탄나루 -3코스: 진탄나루~문산나루~절운재~거운교~노름재~어라연~된꼬까리~만지나루~거운교~사지막~삼옥리
--	--

○ 뽕대길 1구간의 주요경관
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굴암리 뽕대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석회암 바위에 피어나는 돌단풍과 동강 할미꽃 등 계절에 따라 다양한 야생화 관찰 가능한 코스 ◦ 가수리 느티나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가수초등학교 입구의 수령 약 600년의 느티나무로 아름다운 외형으로 강변의 풍경과 조화를 이룸 ◦ 수동 쇠다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동강 12경 중 하나로, 강변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던 친환경 교량으로, 동강의 사라져가는 옛풍경
--	--	--

○ 뽕대길 2구간의 주요경관
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제장마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동강중류에 위치한 아름다운 마을로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사무소가 동강 뽕대길에 대한 정보제공 ◦ 소사마을 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동강 12경 중 하나로, 석회암 기암절벽에 대한 전설과 수려한 풍경이 탄성을 자아내는 지역 ◦ 칠족령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동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등반로이며, 굽이치며 휘돌아가는 동강의 장관을 파노라마처럼 감상할 수 있음
--	--	---

○ 뽕대길 3구간의 주요경관
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어라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3개의 소와 섬의 형태를 띄고 있는 기암괴석과 울창한 송림이 동강에서 가장 잘 알려진 지역 ◦ 거운리 강변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어라연에서 거운교까지의 강변길. 포장되지 않은 채 호젓하게 걸어볼 수 있는 트레킹 코스 ◦ 삼옥리 느티나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삼옥리 동강변의 느티나무로 수령 560년. 본래 성황나무로 마을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장소
--	--	---

□ 토론내용 요약

▶ 김경희 사무국장 (강원도 소비자연맹)

- 환경 보전을 위해 많은 시민운동이 진행되어 왔으며,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향후 환경 운동의 꽃이 될 것임
- 분당에서는 “맹산”이라는 야산에 대한 보전운동을 진행하여 왔음
 - ‘분당환경시민의모임’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과 녹지개발반대운동을 계기로 진행되어 왔으며, 1996년에는 생태 교육·체험 시설로서 맹산반딧불이자연학교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
 - 맹산은 일반적인 가치 측면에서는 보전적 가치가 낮다고 할 수 있으나,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야산에 대한 보전운동으로 수행되어 왔음
- 맹산은 2001년 제2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보전 대상지 시민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하여 보전 지역으로 선정되었음
 - 2002년 4월부터 시민성금 모금이 진행되고 있음
 - 2008년 1월 한국내셔널트러스트와 협약식 후 위탁
- 지속적인 시민운동 추진 및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
 - 맹산 트러스트 1구좌(1만원) 갖기 운동 전개
 -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나무에 이름표 달아주기 운동
 - : 현재 약 8,000만원 모금
 - 약 5,000여명의 자원봉사자 활동
-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추진
 -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, 참가를 통해 맹산의 중요성 부각
 - 반딧불이 서식 장소로서 축제 개최
 - 학교환경교육, 유치원 체험 프로그램, 자연물을 소재로 한 만들기 프로그램, 대보름행사, 식목일행사, 어린이 자연 한마당, 반딧불이축제, 반딧불이체험교실, 해설이 있는 맹산 둘러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전개
 - 기업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경비와 자원봉사의 효과를 함께 취함
- 신도시의 지역적 특성상, 지가가 비싸 부지 매입에 제한성이 있음
 - 시민이 공유하는 보전 공간이라는 인식 강화를 통해 난개발 방지 추진의 효과 기대

▶ 김점수 박사 (강원발전연구원 연구 1본부)

- 강원도는 산림이 약 81%에 달하는 저개발 지역이므로 보전도 중요한 반면, 규제개선에 의한 개발도 필요함
- 특히, 우수한 자원을 지닌 지역의 보전은 물론 가치 제고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득 창출 방안의 강구가 필요함

-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추진을 위해 다양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함
 - 시민들의 참여활성화를 위한 유도방안
 - 강원도의 회원 현황
 - 지속적인 관리운영에 따른 소요비용 총당 방안
 - 지속적인 보전운동을 통해 당초 시민운동의 목적과는 달리 거대 집단화에 따른 우려사항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산방안
-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합리적 활성화를 위해 행정, 시민, 환경단체, 학계 등이 함께 고민이 이루어져야 함

▶ **박상헌 본부장 (강원발전연구원 기획경영본부)**

-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전개를 강원도 환경보전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대안의 구상이 필요함
- 또한, 환경보전정책 추진에 있어 강원도의 재정상 가용재원이 상대적으로 작아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병행 추진도 필요함
 - 강원도와 외부 기관이 협력함으로써 상호 재원을 활용한 운동 추진 필요
- 강원도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고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함
 - 우리나라 내셔널트러스트의 자산현황 및 추진방향
 - 농지확보에 있어서의 제한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
 - 현행 국민신탁법의 문제점, 개선방향 및 가능성
 -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방안
 - 세계 각국의 법제정 현황 및 시사점
 -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이 시민운동으로서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
- 보전가치가 있는 자원 보전을 위해 내셔널트러스트가 지역별로 중요 자원을 선별하는 것도 선행될 필요가 있지 않은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

▶ **제현수 사무국장 (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)**

-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적극적 참여라는 좋은 취지가 있으나 현실적 문제로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
 -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함
- 도시지역일수록 보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
 - 개발화의 진행과정에서 보전의 추진이 어려움
 - 원주시에서도 봉화산 등지의 도심공원이 20년의 보전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장이 필요하나, 개발에 따른 보전대책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

- 근대건축물을 비롯한 문화유산에 대한 적극적 보전도 필요함
 - 정부의 역할이 보다 크며, 제도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함
 - 신탁법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강제수용 요구를 거절할 방안이 없으며,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
- 지역사회 다양한 문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
 - 기존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진단 검토 및 지방의 역할 분석이 필요함
 - 기존의 운동을 선도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경험을 전수하고,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
- 민간이 지속적으로 운동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,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 등 총체적 방안의 구상이 필요함

▶ **이동석 교수 (강원대학교 환경공학과)**

-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함
 -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
-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의 정체성에 대해 보다 분명한 정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및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
 -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
- 정부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
 - 대립관계의 해소 필요
- 자산보전방식의 검토가 필요함
 - 강제매입 등의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
- 개발지역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은 보전적 가치의 사전적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유이므로, 이에 대한 분석 및 개선도 필요함
- 자연자원은 물론 문화유산 자원에 대한 사전적 접근이 필요함
 - 강원도는 접경지역의 특성상 사전적으로 보전해야할 지역이 많으므로, 이에 대한 노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

▶ **지순식 사무관 (강원도 환경정책과)**

- 강원도에서도 동강지역의 보전을 위해 생태보전지역 지정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
 - 동강댐 백지화로 인해 지역주민에 대한 기반시설도 지원
- 일부 민간단체 활동과의 괴리감에 대한 해소가 필요함
 -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강의 이용실적은 미진한 상황이며 회원들만 제한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음
- 동강 보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
- 또한, DMZ 유네스코 등재 신청, 생물권보전지역 설정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

- 내셔널트러스트 등 시민운동과의 연계방안을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음

▶ **한영한 박사 (강원발전연구원 연구 I 본부)**

- 강원도의 소중한 자산을 훼손시키는 난개발에 대한 억제도 계속 이루어져야 하나, 지역의 발전도 함께 병행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
 - 이러한 점에서 영국의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통한 소중한 자연의 보호는 물론 수익사업의 진행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좋은 사례가 될 것임
 - 강원도에서도 소중한 자원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가치를 제고시켜,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창출될 수 있는 모델의 개발이 필요할 것임
 - 자연의 보전을 통한 지역의 수익 창출을 연계시키는 것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과도 상통하는 길이 될 것임
- 시민운동단체, 공공기관, 지자체 등의 연계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상호간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
 - 상호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보전해야 될 지역을 공동선정하고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
 -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문제의 협조, 정책분야의 지원, 시민운동을 통한 참여 유도 등 상호간의 강점을 결합시킬 수 있는 연계방안이 모색되어야 함

▶ **김금호 사무국장 (한국 내셔널트러스트) - 추가 답변 정리**

- 국내의 경우 내셔널트러스트에 대한 이해부족이 가장 큰 문제임
 - 내셔널트러스트는 시민적 소유로 전환되는 것이 가장 기본임
- 시민단체는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한 활용수단이 아닌 파트너로 인정되어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함
 - 경기도의 경우 DMZ에 대해 내셔널트러스트를 통한 구매를 요청한 바 있으나, 일방적인 필요성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되며 충분한 협의 및 추진방안이 모색되어야 함
- 보전이 요구되는 자원을 사전적으로 조사하여 추진하는 부분도 필요하나, 이를 홍보하게 되면 지가 상승이 동반되어 추진이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음
 - 거품 낀 땅을 국민성금으로 매입할 수는 없음
-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통해 자산을 소유한 단체는 6~7단체에 불과할 정도로 운동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
 - 자산확보 및 단체의 정착이 어려움
 - 안정적인 후원금, 모금형태의 확보가 어려움
 - 농지 취득에 있어 농사를 짓는 개인만이 농지취득이 가능하며,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추진 중에 있음
- 보전 대상을 사전적으로 조사하는 데에 있어 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나, 지역 스스로 찾아

보려는 노력이 필요함

- 민관 협치의 좋은 사례는 많으며, 지역사회의 필요성이 선행되어 제기되어야 함

▶ **이무춘 교수 (연세대학교 환경공학부) - 정리 발언**

-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은 우수한 환경자원을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보전활동을 찾기 위한 것임
 - 좋은 취지의 운동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고민이 필요함
- 지역이라는 요소를 중요시하고 지역과 어떻게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인가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
 - 우수한 환경의 보전, 일자리창출, 지역소득 창출 등이 함께 병행될 수 있는 방안의 강구를 통해 저변에 깔려있는 잠재력이 도출되어야 할 것임
- 향후, 단발성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논의체계 및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임

□ **결론 및 정책대안**

- 내셔널트러스트운동에 대한 이해 및 홍보가 활성화되어야 함
 -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은 우수한 환경자원을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보전활동을 찾기 위한 것임
 - 시민단체는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한 활용수단이 아닌 파트너로 인정되어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함
 -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은 향후 환경운동의 꽃이 될 것이며,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고민이 필요함
- 지역이라는 요소를 중요시하고 지역과 어떻게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인가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
 - 우수한 환경의 보전, 일자리창출, 지역소득 창출 등이 함께 병행될 수 있는 방안의 강구를 통해 저변에 깔려있는 잠재력이 도출되어야 할 것임
-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의 전개를 강원도 환경보전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대안의 구상이 필요함
 - 시민운동단체, 공공기관, 지자체 등의 연계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상호간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
 -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문제의 협조, 정책분야의 지원, 시민운동을 통한 참여 유도 등 상호간의 강점을 결합시킬 수 있는 연계방안이 모색되어야 함
 - 기존의 운동을 선도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경험을 전수하고,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
- 우수한 환경자원의 보전도 중요하나, 이를 통해 지역의 발전도 함께 병행될 수 있는 방

안이 강구되어야 함

- 강원도에서도 소중한 자원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가치를 제고시켜,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창출될 수 있는 모델의 개발이 필요함
- 자연의 보전을 통한 지역의 수익 창출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
-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시민의 참여 및 기부문화가 토대가 되므로 이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추진이 필요함
 -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, 참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
 - 물질적인 기부 이외에도 재능 기부도 함께 고려될 수 있음
 - 기업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경비와 자원봉사의 효과를 병행 유도
- 지역사회에 다양한 문제에 대한 사전적 분석이 필요함
 - 기존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진단 검토 및 지방의 역할 분석이 필요함
 - 보전 대상을 사전적으로 조사하는 데에 있어 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나, 지역 스스로 찾아보려는 노력도 필요함
- 민간이 지속적으로 운동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,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 등 총체적 방안의 구상이 필요함

□ 포럼 진행 사진

